

##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유시용<sup>1\*</sup>

<sup>1</sup>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 A Cost-Benefit Analysis on Incorporating the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hiyong Yoo<sup>1\*</sup>

<sup>1</sup>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대안을 상정하고, 각 대안의 순현재가치를 비교하였다. 법인화 과정의 시나리오의 수를 줄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를 상정하였다: ① 법인화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 없음, ② 인건비 상승, ③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행. 이러한 가정은 법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적극적인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법인화관련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반영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인 대안의 선택은 순현재가치가 큰 대안이 우월한 대안으로 결정된다. 대안별로 다양한 시나리오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비교의 대상은 두 대안의 평균값의 상대적 크기이다. 결과적으로, 법인화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이 현상태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보다 현저하게 크다. 이는 할인율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결과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cost-benefit analysis is used to compare policy alternatives on whether the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hould be incorporated or not. Alternative 1 (Current State) is to remain as it is. Alternative 2 (Incorporation State) is to change its legal status from government agency into incorporation. To make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some assumptions are introduced: (1) no labor workforce reductions, (2) wage increase, (3) keeping publicness. These assumptions reduce the resistance from worker and provides them incentives to accept the incorporating process. Those assumptions also reflect the direction of policy of the government. After estimating the net present values of each alternative, it turns out that the NPV of Alternative 2 (Incorporating State) is larger than that of Alternative 1 (Current State). This result holds after doing sensitivity test using different discount rates.

**Key Words** : Cost-Benefit analysis, Net Present Value, Incorporating.

### 1. 서론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계획에 따라 일부 기관들의 경우 법인화를 고려하게 되었다[1, 3]. 공공기관 법인화의 현실적인 목적은 보다 강력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영역에 재투자하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편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대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화와 기존의 상태 중 어느 것이 효율성측면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더 우월한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실시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에 대한 비용

본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교신저자 : 유시용(sy61@cau.ac.kr)

접수일 10년 09월 17일

수정일 10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10년 10월 15일

편익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2006년 이후 2005년에 비해 큐레이터와 그 외 전문직의 비율이 늘어남으로써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자체세입의 증가가 크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입장료 수입의 증가는 관람객의 증가가 아닌 입장료의 인상에 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세입증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체 예산의 95% 이상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2006년 정부지원금은 오히려 증가되었으나, 영업이익률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의 경우 관람객 수는 1999년을 정점(약 89만명)으로 2007년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만 명까지 떨어져 있다. 덕수궁 미술관의 경우도 2001년 67만 명을 정점으로 2007년에는 34만 여명 수준으로 까지 떨어졌다. 관람 인원은 줄어드는데 반해 입장료 수입이 늘어난 것은 입장료의 인상을 통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자체수입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용-편익분석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편익/비용 비율(B/C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실물옵션(real option)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민간부문의 사업이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사업을 선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alternatives)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법인화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기업차원의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과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비용과 편익의 성격과 내용에 있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편익이란 특정 사업의 국민생산에 대한 공익성을 포함하는 이익을 뜻하며, 비용이란 국가자원의 낭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국립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법인화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 언급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와 현재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 2. 비용-편익분석

### 2.1 비용-편익분석 모형

국립현대미술관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두 가지이다.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대안을 상정하고, 각 대안의 순현재가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런데 고려하는 대안들이 상호배타적(mutually-exclusive)이기 때문에, 순현재가를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내부수익률이나 B/C비율 등이 대안 선택 기준이 되는 경우, 선택결과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 고려하게 되는 대안  $i$ 의 순현재가치(NPV)는 다음과 같다:

$$NPV_i = \sum_{t=0}^n \left[ \frac{B_{i,t} - C_{i,t}}{(1+r)^t} \right],$$

여기서,  $B_{i,t}$ 는 대안  $i$ 의  $t$ 시점의 편익,  $C_{i,t}$ 는 대안  $i$ 의  $t$ 시점의 비용,  $r$ 은 위험조정(risk-adjusted) 이자율로서, 이자율 기간구조(term-structure)를 의미한다.  $i=1$ 인 경우, 현상태(대안1)를 의미하며,  $i=2$ 인 경우, 법인화(대안2)를 의미한다. 투자기간은 10년을 상정하여,  $n=10$ 이라 하자. 이자율기간구조는 만기에 따라서 동일한 이자율을 가정하여, 평평한 이자율 기간구조를 가정하여 할인율을 5%로 산정한다.

순현재가 계산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미래 현금흐름인 비용과 편익이다. 이 현금흐름에는 금전적, 비금전적, 경제적, 비경제적 현금흐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에, 위험조정 이자율, 투자기간 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미래 현금흐름인 비용과 편익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증가 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 2.2 법인화관련 기본 전제 및 가정

일반적으로 법인화 이후 직원들의 신분상태가 변하게 된다. 그리고 기관의 경영이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법인화 이후에도 공익적인 기능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현금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법인화 과정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경우, 너무나 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대안의 선택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화 과정의 시나리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법인화과정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도입하고자 한다: ① 법인화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 없음, ② 인건비 상승, ③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

행. 이러한 가정은 법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적극적인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법인화관련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반영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화에 대한 기본 전제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조직의 생산성 증가로 감소될 여지가 많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상기관이 효율적 운영으로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다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현금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현금흐름은 비용과 편익으로 구성된다. 계산의 편익상, 법인화의 편익은 현상태 대비 증분( $\Delta$ )으로 파악하였다. 현상태의 편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금전적인 편익이 많은데,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포함시키게 되는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증분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최종 선택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대안별 순편익의 절대적 크기 비교보다는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1(현상태)의 현금흐름에는 비용과 편익, 그리고 순편익이 있다. 대안1의 비용은 인건비와 사업비이다. 대안1의 순현금흐름(순편익)은 편익이 0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대안1의 비용)이다. 대안2의 비용은 인건비와 사업비, 그리고 법인전환비용을 추가로 고려하여 계산한다. 법인전환비용에는 교육훈련비용과 법인설립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안2의 편익은 대안1과 비교해서 증분으로 파악되며, 법인화로 인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편익을 의미한다.

## 2.2 비용-편익 항목별 추정

### 2.2.1 인건비 추정

인건비는 직원수와 1인당 인건비를 사용해서 추정하였다. 법인화에 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은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직원수의 변화는 자연변화를 내지 조직의 기능 확대를 반영한 성장률을 산정하게 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직원수는 최근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법인화 이후 법인화된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직목표를 실현화하기 위해 전략적 인원수 증가분을 고려했다. 따라서, 직원수 증가율은 현상태 자연변화를 1% 산정,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법인화 시나리오 2%를 각각 산정하였다. 기준 직원수는 100명(2008년기준)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 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 수를 참조하여 모두 4명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이사의 평균연봉은 직원평균임금의 2배로 가정했다.

1인당 인건비의 경우 최근에 큰 상승율을 보였다. 하

지만 인건비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은 (현상태: 3%, 법인화: 5%)로 산정하였다. 법인화의 인건비 상승의 가정에 따라 5%를 적용하였다.

### 2.2.2 사업비

사업비의 경우, 최근에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3.2% 증가하였다. 사업비 상승률에 대해서는 현상태의 경우 5%, 법인화의 경우 보수적으로 7%와 10% 등을 가정하였다. 초기년도 사업비는 2008년의 22,258(백만원)을 산정했다.

### 2.2.3 법인전환비용

법인전환비용은 교육훈련비와 법인설립비용으로 구성된다. 세목별로 추정하기 보다는 총액단위로 추정하였다. 교육훈련비는 최소 연 2.5억씩 3년간 지급하여, 총 7.5억 원을 산정했으며, 최대 연 3억씩 4년간 지급하여, 총 12억 원을 산정하였다. 법인설립비용은 총액금액 기준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합계의 1.3% 혹은 12.3%로 추정하였다.

### 2.2.4 입장료수입

입장료 수입은 200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입장료 인상에 기인한다. 관람객수는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2004년 이후 본관의 유료관람객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장료수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현상태의 경우 최소 5%, 최대 10%를 산정하였으며, 법인화의 경우 최소 15%, 최대 25% 증가율을 각각 산정하였다. 일본 국립미술관과 영국 테이트미술관의 경우, 법인화 이후 관람료수입 증가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2, 4].

### 2.2.5 소비시간 절감효과

전시 이외의 국립현대미술관이 제공하는 고객센터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재가격(shadow price)을 통하여 파악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서비스의 질 개선 정도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하여야 하는 시간(대기시간, 검색시간, 소요시간 등)의 감소와 같은 대리변수(proxy variable)를 사용하여 추산할 수 있다. 소비시간 절감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절감시간(분)×고객수×평균임금(원/분). 국민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국민총소득(GNI)/(경제활동인구×12개월×월 평균근로시간). 관람객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변동성이 큰 편이고, 특별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관람객수의 증가율은 1%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은 800(천명)으로 산정했다. 1인당 시간

절감분량에 대해서는 최소 5분, 최대 10분 등으로 산정하였다.

**2.2.6 기관운영 효율성 및 공익성 가치 증분**

법인화전환 및 교육훈련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기관운영 효율성 및 공익성의 시장가치는 기본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통상 소비자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를 기초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제공하는 잠재적 서비스의 유형도 많기 때문에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공익적 기능은 유지되며, 시장기반(market-based) 공공재 공급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미술 분야의 새로운 공공재 개발 가능성 증가, 공공재 공급량 증가 등을 통해서 공익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미래 각 시점의 현금흐름의 위험조정(risk-adjusted) 기댓값의 현재가치의 합이다. 여기서는 효율성 및 공익성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비용을 누머레어(numeraire)로 선택하여 효율성 및 공익성의 가치를 고려해보기로 한다. 즉, 효율성 및 공익성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의 일정배율이라는 상대가격체계를 활용하여 공익성의 시장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즉, 법인화로 인한 국립현대미술관의 효율성 및 공익적 가치 증분은 인건비 및 사업비 합계의 증분으로 파악하였다. 인건비 및 사업비 합계의 증분의 1.5배 내지 3배로 추정하였다. 이는 산출/비용 비율이 1.5-3.0 정도라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인 추정치이지만,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2.3 대안별 현금흐름 정리**

대안 현상태에 대한 현금흐름은 표 1과 같다.

**[표 1] 현상태(대안1)의 현금흐름 정리**  
(단위: 억원)

시점	인건비		사업비	총비용		순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평균	최대
0	48	48	223	270	270	-270	-270	-270
1	50	50	234	283	284	-284	-284	-283
2	52	53	245	297	298	-298	-298	-297
3	54	55	258	311	313	-313	-312	-311
4	56	58	271	326	329	-329	-328	-326
5	58	61	284	342	345	-345	-344	-342
6	61	64	298	359	362	-362	-361	-359
7	63	67	313	376	381	-381	-378	-376
8	66	71	329	394	400	-400	-397	-394
9	68	74	345	413	420	-420	-417	-413
10	71	78	363	433	441	-441	-437	-433

그리고 법인화의 총비용(표 2)과 총편익(표 3), 그리고 순편익(표 4) 등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 2] 법인화(대안2)의 총비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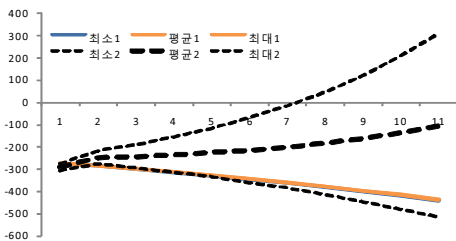
시점	인건비		사업비		교육훈련비용		법인설립비용		총비용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평균	최대
0	48	48	223	223	3	3	4	33	276	291	307
1	55	55	238	245	3	3	0	0	295	299	303
2	58	59	255	269	3	3	0	0	315	323	331
3	61	63	273	296	0	3	0	0	334	348	362
4	65	67	292	326	0	0	0	0	357	375	393
5	69	72	312	358	0	0	0	0	381	406	431
6	73	77	334	394	0	0	0	0	407	439	472
7	77	83	357	434	0	0	0	0	435	476	516
8	82	88	382	477	0	0	0	0	464	515	565
9	87	94	409	525	0	0	0	0	496	558	619
10	92	101	438	577	0	0	0	0	530	604	678

**[표 3] 법인화(대안2)의 편익**  
(단위: 억원)

시점	관람수입 증분		소비시간절감		효율성 및 공익기능		총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평균	최대
0	-	-	-	-	-	-	-	-	-
1	1	2	12	25	13	50	26	51	76
2	1	5	12	25	22	94	36	79	123
3	2	8	13	25	32	144	46	111	177
4	3	12	13	25	42	201	58	148	238
5	4	18	13	26	54	265	71	190	309
6	5	25	13	26	67	338	85	237	389
7	7	34	13	26	81	420	101	291	480
8	9	45	13	26	97	513	119	352	584
9	12	59	13	27	115	618	140	421	703
10	15	77	13	27	134	735	162	500	839

**[표 4] 대안별 순편익 비교**  
(단위: 억원)

시점	현상태			법인화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0	-270	-270	-270	-307	-291	-276
1	-284	-284	-283	-277	-248	-219
2	-298	-298	-297	-296	-244	-192
3	-313	-312	-311	-316	-237	-157
4	-329	-328	-326	-336	-227	-119
5	-345	-344	-342	-360	-216	-73
6	-362	-361	-359	-386	-202	-18
7	-381	-378	-376	-415	-185	45
8	-400	-397	-394	-446	-163	120
9	-420	-417	-413	-480	-136	207
10	-441	-437	-433	-517	-104	309



[그림 1] 대안별 순편익의 비교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상태(대안1)의 순편익의 최소 및 최대값(실선)은 작은 범위로 분포되어 있다. 법인화(대안2)의 순편익의 최소 및 최대값(점선)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대안2의 순편익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민감도분석으로서 할인율이 다르게 변할 때에 순현재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산하여,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5] 할인율에 따른 대안별 순현재가 비교 (단위: 10억원)

할인율	현상태			법인화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3%	-328	-327	-325	-352	-200	-48
5%	-298	-296	-295	-318	-185	-53
7%	-271	-270	-269	-289	-173	-56
9%	-249	-248	-247	-265	-162	-59

최종적인 대안의 선택은 순현재가가 큰 대안이 우월한 대안으로 결정된다. 최종적인 비교의 대상은 두 대안의 평균값의 상대적 크기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화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이 현상태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보다 현저하게 크다. 이는 할인율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결과이다.

현금흐름 추정과정에서 밝혔듯이, 순현재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대안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별 순현재가의 절대적 크기에 대한 정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3. 결론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비교대상 대안은 두 가지이다.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대안을 상정하고, 각 대안의 순현재가치를 비교하였다.

법인화 과정의 시나리오의 수를 줄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를 상정하였다: ① 법인화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 없음, ② 인건비 상승, ③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행. 이러한 가정은 법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적극적인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법인화관련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반영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인 대안의 선택은 순현재가치가 큰 대안이 우월한 대안으로 결정된다. 대안별로 다양한 시나리오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비교의 대상은 두 대안의 평균값의 상대적 크기이다. 결과적으로, 법인화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이 현상태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보다 현저하게 크다. 이는 할인율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법인화 과정에서 다양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데, 실현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법인화 대상기관의 인력구조조정 없이, 인건비 상승과 함께 공공기능 수행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경우, 실현가능한 우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광채기, "공기업 선진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81-100, 2008.
- [2] 김근세, "책임집행기관에 대한 연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2호, pp. 139-162, 1998.
- [3] 박용성, "중앙행정기관의 법인화 가능성 모색",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논문집, pp. 29-45, 2008.
- [4] 박희봉, "책임운영기관 관리운영 개선 방향",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233-253, 2007.

유시용(Shiyong Yoo)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03년 5월 : 미국 Cornell 대학교 (경제학박사)
- 2003년 9월 ~ 2004년 8월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 2004년 9월 ~ 2005년 8월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2005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금융공학, 투자전략